

일본 · ASEAN FTA 추진 현황과 전망

權耿德 · 金恩志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研究를 주요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擘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 3460-1114 / FAX : 02) 3460-1144,1199

URL: <http://www.kiep.go.kr>

일본 · ASEAN FTA 추진 현황과 전망

權耿德 · 金恩志

국문요약

현재 세계교역환경은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로의 변화가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은 세계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SEAN 자유무역협정인 AFTA를 제외하고 뚜렷한 지역 경제 협력체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었다.

최근 FTA가 크게 증가하면서 동아시아국가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지역내 FTA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일본·싱가포르 FTA 출범에 이어, 2004년 11월 일본·필리핀 FTA협상을 타결시켰다. 중국도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배경으로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이 AFTA를 매개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하에 한국도 2003년에 ASEAN과의 FTA를 제안하여 2004년에 공동연구를 마치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한국·ASEAN FTA협상 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싱가포르, 필리핀과 이미 FTA를 체결한 일본의 對ASEAN FTA 정책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통상외교정책에 적지 않은 의미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제2장에서는 일본과 ASEAN을 둘러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동아시아국가들의 FTA정책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일본·ASEAN간 FTA 추진배경 및 전개과정을 서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일본·ASEAN간 산업경쟁력, 무역, 투자 관련 기존 연구자료와 통계

작업을 통하여 경제관계의 변화와 특징을 제시하였다.

제3장 일본·ASEAN FTA의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에서는 전체 ASEAN 국가간 협상과 양자간 협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을 근간으로 일본의 對ASEAN FTA 추진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별 국가(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양자간 FTA정책이 현안별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고의 결론부분인 제4장에서는 일본·필리핀간 FTA협상 타결까지의 과정에서 부각된 농수산물 개방과 노동력의 이동 등에 대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대응방안을 강조하고 싶다.

일본은 對ASEAN FTA 체결에서 농산품의 개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관철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농업의 기업화 및 지원 확충 등 신규조치를 강구하여 해결해나간다는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관련하여 구조개혁특구를 활용한 규제개혁을 통해 ASEAN의 요구조건에 부응해나가는 자세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일본·필리핀 FTA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현재 협상 중인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의 향후 협상 전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본의 ASEAN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동아시아내에서 추진되는 FTA 체결의 전개과정을 정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차례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5
제2장 일본·ASEAN FTA 추진배경과 전략	7
1. 일본·ASEAN FTA 추진배경	7
2. 일본·ASEAN 경제관계	11
가. 무역관계 / 11	
나. 투자관계 / 16	
제3장 일본·ASEAN FTA 추진 현황	18
1. 일본·ASEAN FTA	20
가. JACEP의 비전 / 20	
나. 기대효과 / 22	
다. 현안 / 25	
2. 개별국과의 FTA	29
가. 일본·태국 FTA / 29	
나. 일본·필리핀 FTA / 35	
다. 일본·말레이시아 FTA / 41	
제4장 요약 및 전망	44
참고문헌	47
Executive Summary	48

표 차례

<표 2-1> 일본 · ASEAN FTA 추진일정	8
<표 2-2> 동아시아지역의 무역협정 추진 현황	9
<표 2-3> 일본의 對ASEAN 수출 추이	13
<표 2-4> 일본의 對ASEAN 수입 추이	14
<표 2-5> 일본, 중국, ASEAN 무역 관계	15
<표 2-6>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17
<표 3-1> 일본과 ASEAN 국가들과의 FTA 추진 현황	18
<표 3-2> 일본의 對ASEAN 수출입비중	22
<표 3-3> 일본 · ASEAN 국가간 품목별 관세율	23
<표 3-4> 일본 · ASEAN 국가간 농림수산물 상위 5품목의 현황	26
<표 3-5> JTEPA의 주요 현안과 각국 정부의 입장	34
<표 3-6> 일본 · 필리핀 FTA 최종 합의 주요 내용	37
<표 3-7> JPEPA의 주요 현안	40

제1장 서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지역무역협정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EU를 들 수 있으며, 세계교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은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세계 11위 무역국가인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처럼 세계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SEAN 자유무역협정인 AFTA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지역경제 협력체가 부재하다.

개도국간 지역 경제협력체인 ASEAN의 발전은 각국의 관심도와 산업발전 정도가 상이하어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ASEAN 각국은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동남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역내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였고 AFTA 가속화에 합의하였다. 이후 ASEAN 역내 무역자유화는 더욱 진전되어, 1998년 12월 ASEAN 정상회의에서 AFTA의 목표관세율 달성이 2003년에서 2002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또한 1999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기존 6개 회원국은 최종적으로 2010년까지, 후발가입국은 2018년에서 2015년까지 앞당겨 역내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지역무역협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아시아국가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2001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일본·싱가포르 경제제휴협정(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SEPA)을 출범시켰고, 한국은 2년간의 협상과 비준과정에서의 난항을 겪은 이후 2004년 4월부터 칠레와의 FTA가 발효 중에 있다. 중국도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배경으로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기 시작

하였다. 2001년 중국은 ASEAN+중국 정상회담에서 FTA를 제안하였고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ASEAN과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일본이 중국과의 FTA 체결시 받게 될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판단한 일본정부는 2002년에 ASEAN과의 FTA를 추진키로 합의하는 등 ASEAN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한국도 2003년 ASEAN과의 FTA를 제안하고 2004년 초부터 공동연구를 진행, 2005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등 ASEAN은 동아시아 FTA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동아시아 FTA 추진과 관련된 논의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AFTA를 매개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우리의 통상외교 정책에 적지 않은 의미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달리 전기·전자, 중화학공업 등에서 1970년 이후 ASEAN과의 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본·ASEAN FTA 체결은 개도국간 FTA인 중국·ASEAN FTA와는 달리 교역 및 투자에서 불이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고는 2005년 한국·ASEAN FTA협상 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일부 국가와 개별 협상을, 그리고 2005년부터 ASEAN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對ASEAN FTA 전략을 살펴 보았다. 본고는 일본과 ASEAN 주요국의 정부자료를 활용하였고 일본과 동남아의 정부기관 및 연구소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에서는 일본·ASEAN FTA 추진배경과 경제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일본·ASEAN FTA 추진현황을 서술하였으며, 제4장은 본고의 결론부분이다.

제2장 일본 · ASEAN FTA 추진배경과 전략

1. 일본 · ASEAN FTA 추진배경

2002년 1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일본 · 싱가포르 경제동반자협정(Japan-ASE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과 ASEAN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 ASEAN 포괄적 경제체휴(Japan-ASE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JACEP)」를 제안하였다. 같은해 9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ASEAN 경제 · 통상장관과 일본 통상산업상 회담(AEM-METI)에서 JACEP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양 지역 정상들에게 건의하기로 합의하였고 11월 ASEAN+3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ASEAN 정상들은 10년 이내에 양 지역간 FTA를 포함한 경제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하여 양 지역간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관계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 중국이 ASEAN에 대해 FTA를 제안하였고, 이듬해에 ASEAN+3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FTA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1년까지 양 지역간 FTA를 완성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2년 11월 캄보디아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 · ASEAN FTA 기본협정」이 공식으로 채택된 이후 양측은 FTA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1998년부터 우선 추진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동아시아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 움직임에 중국은 대응전략을 모색하였고, 이에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참여 및 대응차원에서 ASEAN과의 FTA를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도권

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일본은 전통적으로 경제관계가 밀접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한국과의 FTA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ASEAN과의 FTA는 중국과의 동아시아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표 2-1> 일본 · ASEAN FTA 추진일정

일 시	주요 내용
1992.	ASEAN 경제 통산장관-일본 통산산업상 연례 회담 개시
2000. 9.	일본 · 싱가포르 공동연구 종료
2001. 10.	일본 · 싱가포르 경제동반자 협정(JSEPA) 협상 종료
2002. 1.	JSEPA 출범, JAEPA 제안
9.	AEM · METI, JACEP 구체화 위한 계획 건의
11.	일본 · ASEAN 정상, JACEP 추진 합의
2003. 3.	JACEP 위원회 구성
10.	JACEP 골격 합의
2004.	JACEP 연구, 개별국(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협상
11.	일 · 필리핀 EPA 타결
2005.	JACEP협상
2012.	일본 · ASEAN (기존 6개국, CLMV 국가 제외) JACEP 출범
2015.	JACEP 완성

자료: 각국 정부자료를 통해 필자 재구성.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지역의 FTA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싱가포르가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고 일본, 한국, 태국이 체결 혹은 협상 진행 중이어서 동아시아 FTA를 이끌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FTA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 WTO 각료회의 합의실패, AFTA, APEC 등 지역무역협정의 더딘 진행,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고, 동아시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2000년 초까지 단 한 건의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은 역내 개도국의 FTA에 대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표 2-2> 동아시아지역의 무역협정 추진 현황

대 상 국	무역협정 형태	현 황(2004년 11월 현재)
ASEAN	FTA	발 호
싱가포르 · 뉴질랜드	Closer Economic partnership	발 호
싱가포르 · 일본	New Age Economic Partnership	발 호
싱가포르 · EFTA1	FTA	발 호
ASEAN · 중국	FTA	체 결(2010년 발효)
한국 · 칠레	FTA	발 호
한국 · 미국	FTA	협 상
싱가포르 · 멕시코	FTA	협 상
싱가포르 · 호주	FTA	발 호
싱가포르 · 캐나다	FTA	협 상
싱가포르 · 미국	FTA	발 호
AFTA · CER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 상
ASEAN · 일본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005년 4월 협상 개시
ASEAN · 한국	FTA	2005년 협상 개시
일본 · 칠레	FTA	공동연구
일본 · 멕시코	FTA	체 결
한국 · 일본	FTA	협 상
한국 · 중국 · 일본	FTA	공동연구
한국 · 멕시코	FTA	논 의
한국 · 뉴질랜드	FTA	공동연구 완료
한국 · 호주	FTA	협 상
홍콩 · 뉴질랜드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 상
일본 · 캐나다	FTA	공동연구
일본 · 태국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 상
일본 · 말레이시아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 상
일본 · 필리핀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체 결
Pacific-32	FTA	협 상
싱가포르 · 대만	FTA	제안/공동연구
한국 · 중국	FTA	논 의
한국 · 태국	FTA	공동연구 중단
태국 · 호주	FTA	체 결
태국 · 뉴질랜드	CEP	협 상
태국 · 인도	FTA	협 상(조기자유화)
태국 · 중국	FTA	협 상(조기자유화)
중국 · 뉴질랜드	FTA	공동연구완료
미국 · 필리핀	FTA	논 의
한국 · 싱가포르	FTA	체 결

주: 1)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2)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자료: 각국 정부자료.

한편 ASEAN은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위기개발방지를 위해 역내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자유무역지대를 조기에 출범키로 하여 2003년 역내 자유무역지대인 AFTA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AFTA 출범 이전 회원국간의 상이한 산업구조와 경제정책, 그리고 FTA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진통을 겪었다. 특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및 미얀마 등 신규 가입국가들은 경제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기존 회원국들과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완전자유화 시기를 유예하여주는 등 자유무역지대 출범의 경제적 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었다.

ASEAN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와 태국은 적극적인 FTA정책을 펴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FTA 등 대륙별 주요 국가와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한국과 2005년 FTA 출범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태국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수출확대와 투자유치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임을 경험하고,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FTA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2004년 8월 태국은 호주와 FTA 협상을 타결하여 2005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고 인도, 중국과는 FTA 조기자유화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을 시행 중에 있다. 태국은 호주 외에 뉴질랜드, 일본, 미국, 페루 등 거대경제권과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태국과 싱가포르가 FTA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2003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도 향후 FTA 체결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FTA 체결을 희망하는 대상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인도, 호주 등 5개국이며, 이 국가들에서 인도네시아 상품의 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FTA 체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최대 교역대상국인 일본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는 인근 국가인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이 일본과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검토 중인 단계이므로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 유지를 위해 FTA를 서두르기에 이르렀다.

AFTA 외에 양자간 FTA에 대해 계획을 밝히지 않았던 필리핀도 2002년

아로요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 필리핀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한 이래, 2004년 11월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일본과의 FTA 준비에 이어 필리핀 정부는 2002년 7월에 미국과의 FTA 연구에 착수하는 등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FTA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국가였으나 AFTA가 출범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입장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발효 중인 FTA의 성격을 검토해보고 당사국간 무역분쟁 요소를 최소화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AFTA에서도 현지 부품조달비율을 40% 수준의 원산지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기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역내로의 무분별한 제3국 상품의 유입에 대해 방어장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말레이시아의 FTA 정책이 2001년 이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태국과 같이 미래의 FTA 대상국을 선정하거나 싱가포르처럼 FTA 체결에 신속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FTA에 대한 입장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 고려한다는 실용주의적에 근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FTA정책은 AFTA의 성공적인 정착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으며, 양자간 FTA는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과의 체결이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에 입각하여, 2004년부터 일본과의 FTA협상을 개최하고 있다.

2. 일본 · ASEAN 경제관계

가. 무역관계

일본과 ASEAN간 경제관계는 197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산업생산구조가 고비용 · 저효율 양상을 보이자 일본에서의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처한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지역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특히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엔화가 평가절상됨으로써 일본기업들은 생산비용 상승압력을 받게 되어 동남아지역으로 진출이 급증하였으며, 그 결과 동남아 지역경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폐쇄적이던 일본 경영시스템은 개방적인 글로벌시스템으로 개혁되는 결과를 낳았다. 자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공업을 비롯하여,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투자범위도 다양하였다. ASEAN은 1980년대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였고 일본의 직접투자는 동남아 경제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고성장세를 시현하던 동남아경제는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동남아 전역에 확산되었고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동남아국가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1999년 이후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경제여건은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중국경제의 부상과 경쟁이 심화되었고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어 세계경제 여건에 따라 동남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중국 · ASEAN FTA는 중국경제의 동남아 위협론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으로 자국의 거대시장을 동남아국가들에 대하여 개방함으로써 ASEAN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ASEAN 국가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FTA보다 일본과의 FTA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산업간 경쟁관계가 아닌 수직적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어 산업간 무역과 투자유치효과가 기대되고 무역자유화 외에 인적자원 개발과 노동력 이동 등 FTA plus 효과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일본의 對ASEAN의 교역추이를 보면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증가하였다(표 2-3, 표 2-4 참고). 1997년 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ASEAN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1998년 ASEAN 지역의 경제가 침

체되었다. 따라서 1997년 이후 일본의 對ASEAN 수출은 크게 위축되었다. 1999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도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그러나 2001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수출국인 일본의 수출실적이 저조하여 ASEAN에 대한 수출도 감소하였는데, 1997년 수출액을 기준으로(1997년=100) 對세계 수출규모가 95.8 수준인 반면, 對ASEAN 수출은 77.7 수준이다.

<표 2-3> 일본의 對ASEAN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5년간 합계	수출규모 변화주
싱가포르	20,246	14,789	16,285	20,819	14,709	86,848	72.7
태 국	14,582	9,366	11,284	13,663	11,879	60,746	81.5
말레이시아	14,509	9,320	11,110	13,886	11,013	59,837	75.9
필리핀	8,689	7,267	8,755	10,258	8,197	43,166	94.3
인도네시아	10,167	4,292	4,845	7,594	6,407	33,306	63.0
베트남	1,280	1,332	1,626	1,975	1,782	7,995	139.2
ASEAN 합계	69,473	46,366	53,905	68,195	53,997	291,936	77.7
세 계	421,003	388	418	479	403	2,109	95.8

주: 1997년 기준 2001년까지 수출변화지수(1997=100)

자료: UNCTAD(2003), PC-TAS 2001.

국별 수출실적을 보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이 1997년 기준 63에 불과한데, 이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경기침체 이후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ASEAN에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존 회원국은 모두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트남은 수출이 증가하였다. 일본의 對베트남 수출은 1997년 약 12억 8천만 달러였으나 2000년까지 19억 7,500만 달러로 약 54% 증가하였다. 1997년 이후 5년간 일본의 對베트남 수출은 139.2로 향후 일본의 유망 수출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 산업에서 베트남은 세계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

존 국가들은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 게다가 베트남은 산업화의 진행으로 기계류 등 기술산업의 수요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

동 기간 동안 일본의 ASEAN으로부터 수입은 1997년 약 486억 6,900만 달러에서 2001년 525억 달러로 증가하여 1997년 기준 수입규모는 107.9로서 일본의 對세계 수입규모 변화(103.1)를 상회하였다. 특히 ASEAN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었던 2000년의 경우 전년대비 일본의 對ASEAN 수입증가율은 46.6%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국별 수입실적을 보면,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율의 평가절하와 인도네시아 제조업부문의 침체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필리핀으로부터 수입규모의 변화는 127.8로 ASEAN 평균을 상회하였고 다음으로 베트남과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4> 일본의 對ASEAN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5년간 합계	수입규모 변화
싱가포르	14,638	10,844	12,587	16,380	14,870	69,318	101.6
태국	11,376	8,676	10,911	14,493	12,858	58,314	113.0
말레이시아	9,575	8,178	8,862	10,594	10,380	47,589	108.4
필리핀	5,017	4,432	5,304	7,199	6,414	28,366	127.8
인도네시아	5,875	4,719	5,434	6,433	5,383	27,843	91.6
베트남	2,188	1,753	1,960	2,639	2,608	11,149	119.2
ASEAN 합계	48,669	38,602	39,624	58,088	52,513	237,496	107.9
세계	338,830	280,634	309,995	379,663	349,300	1,685,422	103.1

주: 1997년 기준 2001년까지 수입변화지수(1997=100).

자료: UNCTAD(2003), PC-TAS 2001.

일본, 중국 및 ASEAN의 무역관계를 보면, 1990년 중국 · ASEAN 무역은 일본 · ASEAN 무역량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26%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일본 · 중국간 무역량도 4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일본 · ASEAN 무역량의 약 60% 수준이다. 한편 ASEAN 역내 무역은 동 기간 동안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고).

〈표 2-5〉 일본, 중국, ASEAN 무역 관계

(단위: 백만 달러)

from		to	일 본	ASEAN	중 국
일 본	1990			32,066	6,145
	2000			68,186	30,356
ASEAN	1990		27,000	27,500	2,268
	2000		55,945	93,075	16,179
중 국	1990		9,327	3,493	
	2000		41,654	16,633	

주: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자료: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2003년 기존 ASEAN 회원 6개국은 역내 자유무역지대인 AFTA를 출범시켜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관세를 5% 이하로 낮추었다. 이후 신규가입국인 베트남은 2006년까지, 라오스, 미얀마는 2008년 그리고 캄보디아는 2010년까지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거대 단일시장 출범을 앞두고 있어, ASEAN 시장에서 자유무역효과를 기대하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증대도 예상된다. 한편 일본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는 징후가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전통적으로 경제관계가 밀접한 ASEAN과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통해 무역확대와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적극적인 이전을 통해 기술이전, 세계 시장 공략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투자관계

일본기업은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엔고에 대한 대응,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와의 무역마찰,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아시아지역에서의 생산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전개해왔다. 1990년대 들어 생산기지로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對아시아 투자에 힘입어 해외직접투자가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일본내 금융불안이 맞물리면서 일본의 직접투자가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하였다가 1999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 또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일본의 對ASEAN 투자의 중요성은 1990년대에 들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ASEAN의 경우 투자환경이나 정치적 안정성 등의 면에서 아직도 미국이나 EU가 갖고 있는 매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ASEAN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힘입어 수출기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서 현지시장을 겨냥한 투자로 확대됨으로써, 일본 · ASEAN의 경제관계는 긴밀한 연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일본의 對ASEAN 투자를 국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일본의 對ASEAN 투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03년 국별 투자금액은 모두 1991년의 실적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태국의 비중은 1991년 26.1%에서 2003년 32.4%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태국의 외자도입정책 정비가 진척되는 등 외국인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일본 자동차기업의 조립 및 관련 부품업체의 진출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2-6>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미국	18,026	13,819	14,725	17,331	22,193	22,005	20,769	10,316	22,296	12,168	6,461	8,215	10,577	330,284
유럽	9,371	7,061	7,940	6,230	8,470	7,372	11,204	14,010	25,804	24,420	10,600	15,428	12,623	220,293
아시아	5,936	6,425	6,637	9,699	12,264	11,614	12,181	6,528	7,162	5,995	6,639	5,669	6,399	133,092
중국	579	1,070	1,691	2,565	4,473	2,510	1,987	1,065	751	1,006	1,453	1,766	3,143	26,920
홍콩	925	735	1,238	1,133	1,125	1,487	695	602	971	940	348	208	396	20,727
한국	260	225	246	400	445	416	442	303	980	813	563	626	284	10,148
싱가포르	613	670	644	1,054	1,152	1,115	1,824	636	962	457	1,147	752	322	18,030
대만	405	292	292	278	457	521	450	224	285	511	321	375	152	7,294
ASEAN4	3,082	3,197	2,398	3,887	4,137	4,948	5,696	3,369	2,892	2,049	2,558	1,523	1,936	62,570
말레이시아	880	704	800	742	573	572	791	514	526	232	257	80	463	10,374
태국	807	657	578	719	1,224	1,403	1,867	1,371	816	932	884	504	629	16,885
인도네시아	1,193	1,676	813	1,759	1,596	2,414	2,514	1,076	918	420	627	529	648	27,813
필리핀	203	160	207	668	718	559	524	379	617	465	791	410	196	7,498
총계	41,584	34,138	36,025	41,051	50,694	48,019	53,972	40,747	66,694	48,728	32,297	36,858	36,092	880,008

주: 합계는 1951년부터 2003년까지의 실적을 합산한 것임.

자료: JETRO. 『投資白書』 각년도.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일본기업의 對중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對ASEAN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결과, 일본의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1991년 1.3%에서 2003년 8.7%로 확대된 반면, ASEAN의 비중은 1991년 7.4%에서 5.3%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기업의 투자에서 ASEAN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일본·ASEAN 국가간에 형성된 효율적인 분업체계의 구축은 ASEAN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일본·ASEAN간 FTA의 체결을 배경으로, 일본기업들이 계속해서 ASEAN의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시켜나감에 따라 ASEAN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 일본 · ASEAN FTA 추진 현황

일본은 ASEAN 회원국 중 2002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여 현재 발효 중에 있으며, 2004년 12월에 필리핀과의 FTA협상을 타결시켰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태국, 말레이시아와 FTA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도 FTA 추진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 · ASEAN FTA 구상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ASEAN 각국에 제시한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CEP)”에 잘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는 2002년 1월 체결된 싱가포르와의 FTA를 모델로 하고 있으나, 농업 관련 제품의 관세인하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 협상과 전체 ASEAN 국가간 협상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협상방식을 전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요 개별국(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양국간 체결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

<표 3-1> 일본과 ASEAN 국가들과의 FTA 추진 현황

FTA \ 단 계	논 의	공동연구	협상 중	협상 완료	발 효
일본 · ASEAN	○	○			
일본 · 싱가포르	○	○	○	○	○
일본 · 태국	○	○	○		
일본 · 필리핀	○	○	○	○	
일본 · 말레이시아	○	○	○		
일본 · 인도네시아	○				

주: 2004년 11월 현재.

이러한 일본정부의 전략은 일본이 중국과는 달리 개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개도국간 지역무역협정(RTA)을 용인하는 허용조항(Enabling Clause)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대상단위를 ASEAN 전체로 하기보다는 개별 국가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ASEAN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2005년부터 전체 ASEAN 국가와 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개별 3개국과의 협상을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개별 3개국과의 협상 타결 자체가 ASEAN 전체와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개별 국가간 FTA 추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이 제시한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이 2003년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채택됨에 따라, 개별 국가간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일본 · 필리핀 FTA 체결을 위해 양국은 2002년부터 정부간 협상이전까지 5차례의 실무반 회의와 2차례의 공동조정팀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4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의 정부간 협상을 진행시켜 가장 먼저 타결하였다. 또한 일본 · 태국과 일본 ·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2003년에 양국간 실무반 회의와 공동연구가 종료되었고, 2004년부터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일본 · 인도네시아 FTA와 관련하여 양국은 2003년 6월 정상회담에서 실무반 설치에 합의한 이래, 동년 9월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부터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1) WTO는 개도국의 경우 특혜적인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을 용인하고 있는데, AFTA의 경우도 GATT 24조가 아닌 허용조항에 준거해 신고된 개도국간의 느슨한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허용조항에 근거한 지역무역협정은 일부 품목에 대한 특혜적인 무역조치를 회원국 상호간에 제공할 수 있으며, GATT 제24조가 명시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과 ASEAN이 선자유화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국제통상법적인 근거는 기본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근거조항인 GATT 제24조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근거는 허용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에서 제시된 對ASEAN FTA 전략에서는 일본이 향후 싱가포르, 필리핀과의 FTA 체결에 이어 협상 중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FTA를 체결한다면, 사실상 ASEAN과의 포괄적 FTA 체결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CLMV 국가)과 같이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후발국에 대해서는 자유화 기한을 늦추는 특별우대조치뿐만 아니라 양국간 기술협력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교류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통합을 추진할 전망이다.

본 절에서는 일본의 對ASEAN FTA 추진전략을 서술하는바, 전체 ASEAN과의 FTA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태국,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와의 FTA에 대한 전략, 입장, 그리고 현안에 대해 살펴본다.

1. 일본 · ASEAN FTA

가. JACEP의 비전

JACEP의 기본 목적은 양 지역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며, AFTA 출범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한 ASEAN은 개별 국가로서가 아닌 하나의 단위로써 일본과의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SEAN 교역, 투자, 산업정책을 과거 수입규제, 수출보조 등의 정책에서 ASEAN 단일시장내에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야 하며, 각국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일본도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ASEAN의 농산물 수입과 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LMV 국가들은 기존 회원국과

의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이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FTA를 통해 경제적 발전단계를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일본은 후발국가에 대한 인프라 및 기술지원을 하고 선발 ASEAN 국가들도 인재, 시설, 기술, 경험을 통해 후발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고자 한다.

JACEP는 무역, 투자 자유화 외에도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체로서 아시아 채권시장 설립 등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미 ASEAN+3 협력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라는 최초의 실질적인 협력이니셔티브가 금융협력이었다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심화되고 있는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지역신용평가제도, 기준정비, 자본시장의 규범·규제, 거래·결재의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JACEP는 배타적인 블록을 지양하며, 향후 동아시아 FTA 형성에 밑거름의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 ASEAN FTA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 ASEAN FTA가 실현될 경우, ASEAN은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허브가 되고 나아가 동아시아 FTA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과 ASEAN은 물론 한국, 중국도 장기적으로 ASEAN+3, 나아가 홍콩, 대만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공동체가 바람직하며, 이는 EU, 미주 경제권 형성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SEAN은 일본과의 교역구조가 보완적이어서 일본의 투자증대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FTA를 통해 ASEAN과 사이에 장벽이 제거되면 일본의 투자 기대이익률이 상승하여 양 지역의 무역·투자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기대효과

일본의 ASEAN 국가들에 대한 수출구조를 보면, 1차산품은 거의 없고 섬유는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 및 장비 수출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자동차 등 수송기기, 금속, 화학제품 등 4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이다. ASEAN 국가들의 對일본 수출구조를 보면, 1차산품과 경공업제품의 비중이 높으나 일본의 수출비중이 높은 기계 및 장비는 인도네시아 7%가 가장 낮고 기타 3국은 3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제품과 기타 제조품의 비중이 4~19%를 차지하여, 이 산업들에서는 일본과 부품조달 및 완제품 수출관계를 형성하여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일본의 對ASEAN 수출입비중

(단위: %)

품 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쌀	0.0	0.1	0.0	0.0	0.0	0.0	0.0	0.6
육 류	0.0	0.1	0.0	0.1	0.0	0.0	0.0	3.5
기타 1차산품	0.1	2.4	0.0	5.1	0.0	6.2	0.1	1.8
광 업	0.1	39.2	0.0	14.9	0.0	6.6	0.0	0.0
가공식품	0.2	7.5	0.3	3.8	0.6	5.3	0.5	16.0
섬 유	2.4	4.9	0.9	2.5	1.4	3.2	1.8	5.1
가 죽	0.0	1.6	0.0	0.0	0.1	0.5	0.1	0.7
화학제품	13.5	5.5	9.6	7.5	9.1	3.9	10.0	11.5
금 속	11.8	4.3	12.2	2.9	5.3	3.3	5.9	3.8
수송기기	19.2	0.5	11.4	0.5	12.2	1.6	18.9	0.9
기타 기계류	47.6	7.1	61.2	40.5	67.1	57.5	47.6	36.2
기타 제조품	1.7	19.6	2.1	14.8	1.0	4.7	2.2	8.6

자료: 일본 경제산업연구소(2003), 「Discussion Paper 03-E-018」.

일본의 對ASEAN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보면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에서 무관세 혹은 3%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 및 경공업 제품에 대해 10~30%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쌀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111.4%이나 ASEAN 국가들에 대해 300% 이상, 태국은 406%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말레이시아 2.1%,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각각 5.9%, 6.0%이나 태국에 대해서 평균 15%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과의 FTA 체결시 태국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 일본 · ASEAN 국가간 품목별 관세율

(단위: %)

국 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세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쌀	318.5	0.0	379.8	26.7	382.4	50.0	406.5	0.0	114.4	36.3
육 류	14.8	9.4	22.5	34.2	43.9	19.6	56.2	21.0	45.6	17.5
기타 1차산품	14.2	12.8	1.7	33.7	40.9	8.0	21.2	39.7	27.1	13.3
광 업	-0.7	2.6	-0.7	0.0	0.0	2.3	-0.7	1.7	-1.4	1.6
가공식품	38.9	20.7	17.0	11.6	36.5	16.8	47.6	40.7	46.4	22.6
섬 유	8.3	9.0	5.9	13.4	11.8	13.3	9.5	26.3	10.7	18.1
가 죽	16.6	5.9	13.8	18.2	17.1	10.8	15.1	18.4	15.3	8.9
화학제품	2.7	7.3	1.9	7.1	2.5	7.3	1.3	18.1	2.1	7.1
금 속	0.3	8.7	1.3	7.5	0.2	9.0	0.9	14.3	1.0	7.6
수송기기	0.0	24.7	0.0	41.0	0.0	17.5	0.0	49.4	0.0	10.5
기타 기계류	0.2	5.0	0.0	2.7	0.3	3.7	0.1	9.4	0.1	5.0
기타 제조품	6.2	10.9	5.4	11.2	2.7	12.1	1.6	22.0	2.1	6.1
평 균	5.9	9.9	2.1	8.5	6.0	6.4	15.1	17.4	9.2	7.0

주: 1) 수출은 일본의 對ASEAN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2) 수입은 ASEAN 국가의 對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자료: 일본 경제산업연구소(2003), 「Discussion Paper 03-E-018」.

한편 ASEAN 국가들은 일본에 대해 평균 6.4~17.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로 제조업 제품이 해당되며, 일본에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공식품,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서도 동남아국가들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양측의 민간품목임을 알 수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수송기기, 기초 제조업 제품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필리핀의 일본산 쌀에 대한 관세는 50%로 기타 동남아국가에 비해 높아 최대 민감품목임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동남아국가들과 FTA를 체결²⁾하게 되면 농산물 개방을 통해 일본의 소비자들은 농산물과 식료품의 가격하락으로 후생증대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자원재분배와 산업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력이 낮은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개도국인 ASEAN과의 FTA 체결시 일본은 자본 및 기술집약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ASEAN 국가들은 농업 관련 및 식료품 및 경공업 등에 생산확대가 예상된다.

일본, 동남아 주요국의 FTA 체결 이후 일본은 농산물, 식료품, 섬유, 가죽 등 1차 산업과 경공업부문의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수송기기와 기타 제조업 부문에서는 약간의 증가현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일본도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부문의 구조조정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남아국가들은 1차 산업과 경공업부문의 생산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쌀, 육류, 가공식품, 섬유, 가죽 등의 생산증가가 예상된다. 태국은 쌀 생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가죽제품의 생산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리핀은 쌀과 육류에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섬유와 가죽제품의 생산은 증대할 것으로

2) 전면 자유화를 가정.

전망된다.

일본은 ASEAN 국가들과 FTA 체결시 일본의 전통적 강세품목인 기술 및 자본집약산업에서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ASEAN 전체적으로 수송기기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질 것이고 국별로 차이가 있으나 화학, 금속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ASEAN 국가들은 1차산업과 노동집약산업에서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거나 국별로 품목은 상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가공식품, 쌀, 그리고 일본의 민감품목인 가죽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말레이시아는 가공식품, 기초 기계류 등 노동집약 제조업 품목의 수출증가가 기대되는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로서 수송기기의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은 주로 1차산품에서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며, 태국은 기타 동남아국가에 비해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섬유, 가죽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 3차산업 제품 전반에 걸쳐 무역수지 악화와 가공식품, 쌀 수출증대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다. 현안

1) 상품 · 교역의 자유화

일본은 농업을 포함한 일부 광공업제품의 관세철폐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일본의 對ASEAN FTA 체결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최근 일본에서도 동남아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 ASEAN 협상에서는 태국의 쌀과 닭고기, 필리핀의 설탕, 파인애플 등 농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요구, 말레이시아의 베니어합판 수입문제와 일본산 자동차 및 동 부품에 대한 관세인하시기연장문제 등으로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3국은 상품교역부문에서 일본의 농림수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율 철폐가 FTA협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식량안보,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등을 이유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다. 게다가 일본은 자국이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40%(2003년 기준) 수준의 농산물 자급도를 2010년까지 4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WTO협상결과에 따라 개방 정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표 3-4> 일본 · ASEAN 국가간 농림수산물 상위 5품목의 현황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금육	바나나	합판	합판
1위	315억 엔, 11.9%	404억 엔, 20%/10%(4~9월) 25%/20%(10~3월)	636억 엔, 6~10%	1,021억 엔, 6~10%
	새우	새우	통나무	새우
2위	272억 엔, 1.0%	108억 엔, 1.0%	232억 엔 무관세	706억 엔, 1.0%
	닭고기	파인에플	제재가공제	제재가공제
3위	234억 엔, 6.0%	69억 엔, 17.0%	202억 엔, 0~6%	245억 엔, 0~6%
	오징어	다랑어류	팜오일	다랑어류
4위	210억 엔, 3.5%	49억 엔, 3.5%	142억 엔 무관세	181억 엔, 3.5%
	설탕	아스파라거스	새우	커피
5위	200억 엔, 71.8엔/kg	18억 엔, 3.0%	54억 엔, 1.0%	69억 엔, 무관세
농림수산물 총수입금액(a)	3,142억 엔	962억 엔	1,738억 엔	2,896억 엔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a) 비중	26.2%	12.7%	11.4%	16.1%

주: 2001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농림수산성(2003. 9). 「自由貿易協定を巡る各國との議論の状況と今後の対応」.

그러나 일본은 對ASEAN FTA 체결에서 농산품의 개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관철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농업의 기업화 및 지원 확충 등의 신규조치 등을 강구하여 해결해나간다는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ASEAN의 요구조건에 부응해나가는 자세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태국 등 3국과 일본은 일본의 농산품 시장개방이 양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개방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동남아산 농산품에 대해 2003년 4월부터 GSP 품목을 118개에서 221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강한 협상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은 태국에 대해서 철강, 자동차 및 동 부품, 석유화학제품의 개방을 요구하였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자동차 및 동 부품, 전기기기, 철강 및 섬유류의 고관세철폐와 더불어 수입승인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 제거를 요청하였다. ASEAN 국가들은 본래 높은 관세를 통해 국내상품은 물론 국내기업을 보호해왔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은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일본과의 FTA 체결로 인해 고관세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ASEAN 국가의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노동인력의 자유화

일본 · ASEAN 개별 국가와의 FTA에서는 “노동인력 이동(Human Mobility)”의 사안이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양국간 협상안이 주목된다. 태국은 노동인력 자유화와 관련하여 자국의 마사지사가 일본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필리핀도 양국간 상호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필리핀에서의 간호사 · 간병사 자격취득을 일본에서 동등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ASEAN 각국과의 FTA협상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높은 장벽의 규제에 일관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초기의 강경한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한다는 유연성을 보였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필리핀과 FTA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양보안을 제시하는 대신 농업분야에서 필리핀으로부터 양보안을 촉구함과 동시에 일본내 고령화에 따른 간호사·간병인의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 후생노동성 및 일본간호협회 등은 의료수준의 저하를 우려하면서 외국인이 일본에서 의료·간호활동을 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일본에서 자격취득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일본내 의견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일본이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체류자격, 연수기간, 수용인원 수 등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ASEAN 각국과의 협상도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3) 원산지규정

일본과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3국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rule)을 적용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 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과 부가가치 기준(value-added rule)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번 변경기준의 경우 일본은 태국에 대해 HS 4단위로 하여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반면, 태국은 HS 6단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ASEAN 회원국간 누적 원산지규정(cumulative rules of origin)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2. 개별국과의 FTA

가. 일본 · 태국 FTA

1) 협상 현황

태국은 일본의 직접투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자동차조립업체가 하나의 집적을 이루고 있는 생산거점(ASEAN 최대 거점)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태국은 중요한 경제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 태국 FTA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고 민감한 협상이슈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의 태국측 조건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2004년내 타결을 목표로 수차례 협상을 마친 상태이나, 양국의 민감사항에 대한 이견조정이 늦춰지고 있어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태국과의 협상에서는 관세, 인력이동, 투자규제 등이 주요 협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태국의 외국인투자규제법에 대한 개정, 서비스 관련업종의 진출장벽을 낮추는 것이 요구조건이고, 태국은 농산품, 특히 쌀, 타피오카, 설탕, 닭고기 등에 대해 시장개방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외에 일본의 민감 제조업 품목인 가죽제품, 신발류 등도 쟁점 사안이다. 특히 태국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하여 자국 마사지사의 일본내 취업을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서비스분야에서는 탁신 총리의 요청사항인 태국내 일본계 건강보험 적용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협상의 난항은 물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태국과의 EPA에 대해서 일본 국내입장은 찬반론이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태국의 요구에 일체 양보할 수 없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데, 농가 및 관련 이익단체에 대한 배려와 위협요인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계 등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적극 고려

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일본은 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태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노동력의 이동 요구, 즉 마사지사의 일본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현 법률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민감부문을 제외하고 포괄적 경제연대, 투자율 완화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태국과의 협상이 지연될 경우 ASEAN 전체 협상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ASEAN 전체 협상에서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태국내 일본과의 FTA 체결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농산물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일본의 관세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FTA에서 농산물을 제외한다면 협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 태국의 입장이어서 협상 이후 유명무실한 EPA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전망

일본 · 태국 EPA의 쟁점현안은 <표 3-5>에서 알 수 있듯이 농산물 개방과 인력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양측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이상 난항이 예상된다.

농산물 개방문제에서 태국내 쌀 수출업자들은 일본의 우려와 달리 EPA협상시 쌀시장 개방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쌀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쌀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투입된 생산비에 비해 기대수익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태국은 일본이 쌀에 대해 다소간의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한국 · 태국 FTA 혹은 한국 · ASEAN FTA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은 일본의 가공 닭고기와 새우 수출시 겪게 되는 위생 및 검역기준 등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2

년 3월 EU는 태국산 가공 닭고기와 새우에서 금지된 항생제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후 태국의 EU로의 닭고기, 새우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태국 식품가공업연합(Thai Food Processors' Association) 등 식품 관련 이익단체는 태국정부에 대해 무역협상시 이러한 장벽 제거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우려하고 있는 태국 기업인들은 선진국, 특히 일본시장에서 농산물 수출을 위한 관세인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국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일례로 2003년 기업인들의 요구조건인 비관세장벽 축소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FTA를 추진하기 위해 농산물 개방은 체결 이후 10년 후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농산물 개방 없는 FTA는 의미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탁신 총리가 지방 농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총리로 선출된 데 기인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느 FTA협상에서도 농업 개방요구는 확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태국은 JTEPA를 통해 서비스 자유화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양측간 협상에서 서비스 자유화 대상 분야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태국은 일본정부에 대해 두 가지 부문의 포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의료서비스 자유화로, 특히 태국은 일본의 의료보험시스템을 태국내 의료혜택을 받는 일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원하고 있는데, 이는 탁신 총리의 지시로 협상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자유화는 양국간 협상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태국내에서도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간병인 및 안마사의 일본내 취업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일본 노동시장의 개방이다. 이는 JTEPA의 “인력이동(Human Mobility)”의 안으로 다루어 지고 있는데, EP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도 간호사의 취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안이 주목된다. 이러한 요구조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의료보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간병인, 안마사는 의료 및 보건 부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도 태국에 대해 소비자 관련 서비스, 제조업 관련 금융 및 지원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청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서비스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완화는 아직까지 민감한 부문으로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유보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JTEPA의 법률적 기본이 WTO와 합치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부문의 적용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과 “차별조항 금지(the absence or elimination of 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를 명시하고 있는 GATS 제5조를 인용하여 태국이 서비스부문 투자요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태국이 아직 개도국의 입장이므로 적용에 유연성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JTEPA는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농업과 수산업 관련 협력은 농업개방의 부담을 피할 수 있어 양국이 모두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즉 개방이라는 과제부담을 덜고 EPA를 사용한 바와 같이 ‘동반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이 양국, 특히 일본의 개방이 당분간 불가능할 경우 JTEPA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농업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농민들의 생활을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개방을 대체하는 협력’방식은 양국 민감부문의 해결 방식으로, 이는 필리핀과의 EPA에서 농업부문은 동일한 해결안으로 평가된다.

JTEPA는 또 다른 협력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학술교류, 교육부문의 상호 인증, 일본내의 교육, 인턴십 확대 등을 포함한 HRD가 대표적인데, 이에 대해 태국은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2002년 11월 일본을 방문한 탁신 총리는 ‘양방향정책(dual-track policy)’을 언급하였다. 대외적으로 수출과 FDI를 확대하고 대내적으로 국내경제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탁신 총리는 취임 후 국내경기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금 및 중소기업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였고, 1부락 1생산품 운동(OTOP)을 전개하고 있는데, FTA정책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탁신 총리의 경제 최우선정책은 FTA 추진이다. FTA가 체결되면, 수출은 확대될 수 있으나 국내경기 활성화부문은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어 JTEPA의 new issue는 dual track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FTA협상방식은 new issue 혹은 WTO 플러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EPA 협상에 S&T, HRD를 포함하여 국내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JTEPA협상과정에서 태국은 무역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태국의 산업, 제조업자들을 고려한 것이고 서비스부문의 개방은 개도국 지위를 내세워 개방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 ASEAN FTA의 허용조항(Enabling Clause) 적용문제와는 별도로 이는 태국정부의 WTO 규정, 부분적 합의 금지를 이해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JTEPA는 유연성을 통해 농업협력 등 new issue를 통해 합의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에 대해 농업협력을 이루어냄으로써 양측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한편 태국은 JTEPA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 등 국내경제의 구조조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태국의 DTN 공무원들은 JTEPA의 new issue가 전통적인 FTA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4년 12월까지 네 차례의 협상을 개최하는 동안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10월 협상에서 태국이 일본에 대하여 쌀의 관세철폐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일본이 닭고기 등 기타 품목의 관세철폐에 유연한 자세를 보여 타결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표 3-5> JTEPA의 주요 현안과 각국 정부의 입장

구분	현안	태국측	일본측	
FTA 이슈	상품교역 자유화	농산물 관세철폐	○ ×	
		공산품 관세철폐	△ ○	
		JSEPA 수준의 원산지규정	△ ○	
	서비스교역 자유화	서비스 FDI 규제 완화	△ ○	
		일본 의료보험 태국내 적용	○ ×	
		GATS mode 4) 자유화(마사지사, 간병인)	○ △	
New Issue	인적자원 이동	일본내 취업허가시스템 개선	○ ○	
		일본내 태국인 취업규제 완화	○ △	
		태국에서 취업허거절차 완화	○ ○	
		교육체계 간소화	- ○	
	투자 관련 규정 제정	내국인대우, MFN	△	○
		요구조건 이행에 관한 광범위한 금지	△	
		벌원 이용	△	
		투명성 확보	○	
		토지 수용 및 보상	○	
		이전	△	
	싱가포르 이슈	분쟁절차	△	
		지적재산권	○ ○	
		정부조달	△ ○	
		경쟁	○ ○	
New Issue	비문서 교역 상호 인증	통관절차 개선	△ ○	
		컴퓨터 통관시스템 도입	△ ○	
	HRD	학술 교류(공동연구)	○ ○	
		학위의 상호 인정		
		일본에서 인턴십 태국에서 일본어 교육		
	금융협력	○ ○		
	무역·투자 증진	무역보험 협력	△ ○	
		개인사업가를 위한 “장기 체류 프로그램”		
	기업환경 개선	기업지원기구 설립	△ ○	
		기업활동 관련 절차 투명성 확보	○ ○	
기업활동절차 간소화		- ○		
정보·통신·기술		△ △		
중소기업협력	중소기업에 관한 합동 실무반 설치	○ ○		
과학기술협력		○ ○		
농수산협력		△ △		
관광		△ △		

주: ○=긍정적, △=소극적, ×=부정적, - = 입장 없음.

자료: JTEPA-TF(2003)

- 3) 특정 서비스부문에 대해 개방을 약속하면 국경간 공급(mode 1)과 해외소비(mode 2)의 모든 제약(limitations)이 철폐되고, 상업적 주재(mode 3)와 자연인의 이동(mode 4)은 점진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나. 일본 · 필리핀 FTA

1) 협상 현황

필리핀 경제가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3~4% 성장률에 머물러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자 필리핀정부는 만성적인 실업문제, 빈곤층 증가 및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외국인직접투자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의 안정성장기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필리핀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양자간 FTA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필리핀정부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EPA 체결이 양국간 교역 확대는 물론 IT 및 S&T, HRD 등에 걸쳐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나아가 이러한 형태의 EPA 체결을 통하여 필리핀의 수출시장 확보는 물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2002년 5월 일본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총리에게 양국간 FTA를 제안하여 2004년까지 일본 · 필리핀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동년 10월에는 양국간 FTA협상을 위한 실무반(WG-JPEPA)이 설치되어, 5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듬해 6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산관학 관련자들을 포함시킨 JPEPA 공동조정팀(JPEPA- JCT)을 구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JPEPA 공동조정팀은 2차례(9월, 11월)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EPA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최종보고서를 12월에 발표하였다.

이후 양국은 2004년 2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5차례의 정부간 공식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과정을 통하여 양국 정부는 각각 일본 측이 농산물에 대한 저관세범위 설정과 간호사 · 간병인에 대한 특례비자 발급에 대한 양보안과 필리핀 측이 광공업품에 대해 10년 이내 관세 완전철폐 등의 양보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한 결과, 2004년 11월 29에 JPEPA협상을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2) 현안 및 쟁점

JPEPA 협상과정에서는 일본의 간호사·간병인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과 농수산물 및 철강·자동차 등 광공업품에 대한 관세철폐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외에도 필리핀의 서비스부문에 대한 자유화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현안별 쟁점 및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정부는 일본과의 EPA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로 노동력이동문제를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필리핀은 단순히 노동력 이동의 원활화, 노동력 향상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부문의 노동력 개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초기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나 부분적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간호사·간병인에 대한 자격요건 및 체류기간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정부가 제시한 방침에는 ①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필리핀내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발한 이후, 해당자에게 일본어 연수를 실시하여 특례비자를 발급하고, ② 체류기간과 관련하여 일본에 입국한 간호사와 간병인이 일본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3~4년 동안의 실무연수기간을 부여하며, ③ 자격요건을 갖춘 간호사, 간병인에 대한 체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되, 일본내 관련 자격을 취득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제안에 대하여 필리핀정부가 수용함으로써, 노동시장개방문제가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다만 수용인원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보류됨에 따라 향후 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농산물과 관련하여 필리핀정부는 5개 농산물(설탕, 닭고기, 바나나, 파인애플, 다랑어)에 대한 관세철폐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EPA의 무역자유화협상이 농산물의 관세철폐로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설탕을 제외한 4개 농산물에 대하여 일본·멕시코 FTA

협상에서 도입한 바 있는 저관세범위를 설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제4차협상에서 양국은 ① 닭고기, 파인애플에 대하여 저관세범위를 설정하고, ② 바나나, 다량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후 관세를 철폐하며, ③ 설탕에 대해서는 4년 이후에 재협상한다는 데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표 3-6> 일본 · 필리핀 FTA 최종 합의 주요 내용

부 문		최종 합의 주요 내용
농수산물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 보리 · 유제품: 즉시철폐대상에서 제외 · 쇠고기, 돼지고기, 전분, 파인애플 통조림: 재협상 · 설탕: 4년 이후 재협상 · 닭고기: 1년 이후 3천 톤, 5년 이후 7천 톤 저관세 설정 · 파인애플: 1년 이후 1천 톤, 5년 이후 1,800톤 무관세 설정 · 바나나: 10년간 관세철폐 · 다량어, 가다랭이: 5년간 관세철폐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 사과, 바나나 등은 즉시철폐
광공업품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혁 · 신발을 제외하고 즉시철폐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자동차, 가전용 고급강판(일본으로부터의 총수출량의 60% 이상) 등은 즉시철폐, 일부는 5년 또는 10년 이후 철폐, 30% 정도는 상한선을 설정하여 3년 이후 재협상 · 자동차: 완성차, 부품은 2010년까지 철폐, 엔진 및 일부 대형차는 즉시철폐 · 전기 · 전자제품: 10년이내 철폐, PDP TV 등 고부가치제품은 즉시철폐 · 섬유 · 의류: 대부분 즉시철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필리핀의 간호사와 간병인 수용 · 투자부문의 상호 자유화 · 건설 등 특정 서비스분야의 상호 자유화

자료: 日本經濟新聞

셋째, 마지막까지 협상 체결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광공업분야에서는 필리핀이 철강에 대하여 대일 수입량의 60% 이상의 규모에 대한 관세를 즉시철폐하며, 자동차·동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10년까지 완전철폐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본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상품교역자유화 관련 안건이 해결되었다.

넷째, 일본은 필리핀이 GATS 자유화 이행에 소극적⁴⁾이어서 일본의 서비스 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리핀에 대해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자유화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일본은 일본 기업의 토지소유, 정부의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정, 기타 FDI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포함시킨 A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필리핀 측에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리핀은 서비스부문에서 AFTA 이상의 자유화를 시행한다는 것이 민감한 사항으로 보류해왔으나, 일본에 대하여 투자 관련 최혜국대우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와 건설 등 서비스부문의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필리핀내 일본상공회의소가 2002년 아로요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필리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노동문제, 정치적 안정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필리핀정부는 민간부문의 요구조건을 검토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 전망

필리핀은 협상과정에서 new issue와 관련하여 인력이동의 자유화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HRD 협력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일본이 협상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민감부문 개방협상에 집중하기보다

4) 일본 측은 GATS 이행규정 155개 중 102개 분야에 대해 완전 혹은 부분개방하였고 필리핀의 개방은 42개에 불과하다(JPEPA-JCT).

모든 부문의 균형적인 개방과 민감부문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한 장기적인 개방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EPA를 통해 양질의 노동자 양성, 교육기회 확대 및 빈곤퇴치의 핵심요인으로서 HRD 협력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 개혁의 동기요인으로서 EPA도 의의가 있다. 필리핀은 협상과정에서 자국의 법률, 규정을 개정하는 데 난색을 표명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필리핀이 추구하는 무역자유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new issue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환경 개선과 경쟁정책을 통해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필리핀은 new issue를 통한 협력사업의 전개와 구조개혁을 통해 전통적 의미의 양자간 FTA 플러스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으로서도 필리핀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지금까지보다 한층 긴밀한 외교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기존의 ODA방식을 대신하여 FTA를 통해 필리핀 나아가 ASEAN의 일본시장 접근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금번 필리핀과의 FTA 체결과정에서 농산품 및 노동인력의 자유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이에 일본정부는 농업부문에서 지금까지 농업보호책의 일환으로 전개해 온 관세정책 대신에 보조금 등을 통한 지원방안과 구조개혁특구를 활용하여 농업부문에 법인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조치 등을 모색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심하였던 노동시장 자유화부문에서도 고령화 진전으로 간호사·간병인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설득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동시에 ODA 일환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내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외에 일본어 연수기관을 설립하는 대응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일본경제가 직면한

구조개혁이라는 과제를 FTA를 통해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일본정부는 일본 · 필리핀 FTA 타결을 모델로 삼아 현재 협상 중인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과의 對ASEAN FTA협상을 가속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7> JPEPA의 주요 현안

구 분		현 안	
FTA 이슈	상품교역 자유화	농산물 관세철폐	
		공산품 관세철폐	
	서비스교역 자유화	시장개방, 내국민대우	
	인적자원 이동	보건 및 의료부문에 노동력 시장개방	
비자 신청서 접수의 원활화			
싱가포르 이슈	투자 관련 규정 제정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비문서 교역		
	상호 인증		
	통관절차 개선		
	HRD		
	금융협력		
	무역 · 투자 증진		
New Issue	기타 이슈	기업환경 개선	
		정보 · 통신 · 기술	
		중소기업협력	
		과학기술협력	
		에너지	
		관광	
		방송	

자료: JPEPA-JCT(2003)

다. 일본 · 말레이시아 FTA

1) 협상 현황

양국은 2004년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는데, 상품교역 자유화 및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노동력 이동이 핵심사안이었다. 일본은 말레이시아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과 상품교역에서 관세인하를 요구하였다. 말레이시아도 일본에 대해 팜오일 등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를 요구하였고 new issue로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일본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하였다.

양국의 무관세교역은 일본의 對말레이시아 수입의 86%(GSP 포함)이고 말레이시아의 對일본 수입의 67%를 차지한다. 일본은 말레이시아가 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기계, 철강, 섬유류에 대한 관세철폐를 요구했고 비관세장벽 철폐와 말레이시아의 승인·허가와 같은 수입승인조치의 완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현 단계에서 자동차와 철강부문의 자유화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同 부문에 대한 교역자유화 외에 투자, 산업협력 등을 통한 접근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농산물 및 섬유, 화학제품에 대한 일본의 시장개방을 요청하였는데, 특히 농산물의 경우 일본의 표준, 위생 및 검역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지원 등 다소 신축성 있는 협상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JMEPA하에 상기 부문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 및 협력을 위한 공동자문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여 국제시장에서 일본의 농산물과의 공조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모색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농업이 식량안보 관점에서 민감부문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장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에 대하여 말레이시아의 양해를 구했고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밝히고 있다.

일본은 자국산 임산물 비중의 감소로 인해 합판과 같은 품목은 민감품목임을 강조하였고 임산물에 대한 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외에도 환경보전 측면에서 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말레이시아의 중요 목재시장으로 연간 150만^m를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목재가공 수출로 인한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임산물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어서 일본과의 포괄적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수산물부문에서도 양국은 해양자원의 개발과 가공부문에 관한 협력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제조업제품과 관련하여 가죽과 가죽제품, 신발은 민감품목임을 강조하면서 관세철폐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 일본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경제성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도 비제조업부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내국인대우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투자 관련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기술이전과 R&D 투자를 요청하였다. 말레이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동문제도 태국, 필리핀과 같이 일본 측이 꺼리는 현안이나 JMEPA에서는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경제활동과 서비스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과 연수프로그램에 의한 학생의 이동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태국이 마사지사를, 필리핀이 간병인의 취업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민감하게 논의될 인력이동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말레이시아내 단기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허가절차를 완화해줄 것을 제의하였다.

2) 전망

일본은 일본 · 싱가포르 EPA 틀을 고수하면서 기타 ASEAN 국가와 협상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산물 등의 쟁점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쌀, 열대과일의 수입요구 정도가 태국, 필리핀에 비해 낮아 협상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일본 · ASEAN CEP에서는 정부조달 반대, 일본 · 말레이시아 EPA에서는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즉 말레이시아는 전체에서 찬성하게 되면 모든 ASEAN 국가에 대해서도 개방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개별 협상에서만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ASEAN 각국과의 협상에서 쟁점사안이 비교적 적은 말레이시아와의 EPA협상이 순조롭게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현재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여하고 있는데, 2003년 300%에서 200%로 인하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민차(3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다른 자동차업체와의 차별적 대우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자동차를 예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핵심부문인 자동차부문이 개방 또는 장기간 유예된다면 내용 없는 EPA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제조업에서 100% 외국인투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한정부문(일부 예외품목 포함)에 대해서는 30%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분야는 70%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나머지는 말레이 민족자본 투입을 의무화하는 등 동 부문의 비율 조정이 협상이슈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제4장 요약 및 전망

일본은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이 ASEAN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와 국제적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어 그동안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유지해온 우월적 지위를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ASEAN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관계가 밀접한 국가와의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와의 FTA인 JSEPA는 농업 등 민감부문이 적어 협상이 용이하고 FTA에 대한 반감이 낮아 일본 최초의 FTA로 체결되었다. 이후 일본은 멕시코, 필리핀과의 FTA 체결에 성공하였고,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ASEAN 3개국과의 FTA는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감부문의 개방은 최소화하고 FTA 이외의 이슈를 부각시켜 협상에 임하고 있다. 3개국도 FTA의 목적이 일본의 농산물시장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FTA 외의 이슈를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기반 마련에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달리 ASEAN 국가 중 일부 국가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중국보다 늦게 ASEAN과의 FTA를 추진하였고, 전체 협상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일본은 오래 전부터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해온 입장이어서 ASEAN과의 FTA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협력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국·ASEAN과의 FTA가 실현된다면 동아시아 협력 주도권을 중국에 상실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목표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FTA 전략인 EPA가 민감부문의 개방도는 낮으나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고 new issue를 통해 FTA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일본의 ASEAN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과 ASEAN 개별국간의 FTA협상은 동남아국가들의 농산물 개방과 인력이동 확대 등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여 타결이 순탄하지 않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일본과 FTA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ASEAN의 이해관계가 있어 협상과정이 주목된다.

또한 일본은 EPA를 통해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는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경험을 쌓게 되었다. 특히 new issue에 의한 협력을 통해 상대방의 능력배양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장기적으로 협력부문의 개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겪었듯이 필리핀, 태국 등 경제격차가 존재하는 국가들은 교역부문의 개방을 우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개방에 의한 효과가 new issue에 의한 효과보다 가시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FTA/EPA는 대부분 무역보완관계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역구조 면에서 볼 때 일본은 제조업과 기술집약적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개도국들이 원하는 농산물 등 민감부문의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이기에 ASEAN과의 협상안은 “협력”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개별 협상을 벌였던 3국 중 필리핀이 가장 먼저 타결하였다. 태국은 농산물의 對日 수출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는 자동차 관련 산업 등 일부 민감부문에 대한 말레이시아 시장 자유화가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필리핀도 농산물 수출 개방을 일본 측에 요구하였고 노동력 이동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민감부문이 이 국가들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핀은 농산물의 對日 수출 확대보다 태국, 말레이시아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 교육, 기업환경 개선 등 new issue 등의 효과도 크게 기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10년 중국·ASEAN FTA가 출범될 예정이고 2005년에는 일본·태

국 FTA, 일본 · 말레이시아 FTA협상 타결과 ASEAN과의 전체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4년 ASEAN+한국 정상회담에서 양 지역 FTA협상 시작과 2009년 출범에 합의하였다는 점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ASEAN과의 FTA 추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ASEAN에서의 경제적 불이익, 정치적 소외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내에서 추진되는 FTA 체결의 전개과정을 정밀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경덕. 2003. 『태국의 FTA 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홍배 · 김양희 · 김은지 · 정훈. 2003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03-09
- 정인교 · 오동윤. 2003. 『중·ASEAN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3-08.
- 정훈. 2002. 『1990년대 일본해외직접투자의 패전 변화와 한국의 대응』. 지역연구시리즈 02-02.
- Balassa. B. 1966. “Tariff Reductions and Trade in Manufactures Among the Industrial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6. pp. 466-473.
- Balassa, B. and Luc. Bauwens. 1987. “Intra-Industry Specialization in a Multi-Country and Multi-Industry Framework.” *Economic Journal*. Vol.97. pp. 923-939.
- IDE-JETRO. March 2004. *New Issues in FTAs : The Case of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between Japan and ASEAN Countries*.
- Jiro Okamoto. 2003. “Whither Free Trade Agreement? Proliferation, Evaluation and Multilateralization”. IDE Development Perspective Series No. 2.
- Kenichi Kawasaki. 2003. “The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 in Asia”.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3-E-018
- 浦田秀次郎 編著. 2002. 『FTA 가이드ブック』. 東京:JETRO.
- 日本經濟新聞社. 2002a. 『日本のFTA戰略』. 東京
- _____. 2002b. 『日本の通商政策とWTO』. 東京
- 日本財務省. 『對外・對內直接投資狀況』 各年度

Executive Summary

Current Status of promoting Japan-ASEAN FTA and Prospects

Kyoungdoug Kwon and Eunji Kim

The November 5, 2002, Joint Declaration of the Leaders of Japan and ASEAN on JACEP(Japan-ASEAN Close Economic Partnership) was an appreciated initiative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Integration. It stressed that “Japan and ASEAN should be economic partners not only concerned with liberalizing trade and investment but also in comprehensive areas including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finance, HRD, IT, SM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education.”

The process of formulating JACEP is crucial in order to ensure that the entire JACEP process emphasizes trust, confidence,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each other. The process of reaching a final agreement on AJCEP could be viewed as a learning process as well as a way of understanding each other’s expectations, needs and concerns. For example, the new members of ASEAN will have to catch up not only with old members but also with the process of JACEP, given the current low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JACEP is equally important to both Japan and ASEAN in economic and politic views. JACEP is not just an economic framework, without having any political or strategic significance. Politically, Japan and ASEAN need to further strengthen their relations to meet the challenge of a rising China. Given the high

degree of cooperation and close partnership that they enjoyed, Japan-ASEAN relations over the past year have transformed and strengthened. Continuing to move forward in the Japan-ASEAN relationship remains crucial as both sides continue to value the other's role in East Asia and the world.

Economically, ASEAN has been benefiting from Japan's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investment and trade. Japan is ASEAN's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and a major source of FDI. The ASEAN countries, including new members, need all the possible economic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Japan in order to promote their economic development.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JACEP has become even more important, as the ASEAN countries need to quickly recover and at the same time boost their respective economies. ASEAN is an important market of Japan as well, given its past, current and future.

JACEP not only plays a pivotal role in the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or East Asian community but also would be beneficial as leverage from ris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global liberalization.

KIEP 발간자료목록(2000~04. 12)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河由貞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吳東胤 · 林泓修
02-02	일본 수입축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金恩志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朴映坤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河由貞
02-05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간 협력방안	崔允靜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裴嬉娟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權耿德
02-08	東아시아의 産業內貿易 增加 推移와 示唆点 - 韓 · 日의 對ASEAN 貿易을 중심으로	朴在旭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李哲元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03-03	태국의 FTA 정책과 시사점	權耿德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朴馥永 · 裴嬉娟
04-01	南亞共 恊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朴英鎬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 · 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哲元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朴英鎬
04-04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朴映坤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韓 · 英 경제협력의 과제	金興鍾 · 金均泰
04-06	일본 · ASEAN FTA 추진 현황과 전망	權耿德 · 金恩志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鄭銀淑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吳勇錫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李榮洙 · 徐煥周
00-05	日 · 北 經濟協力의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朴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화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金正湜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楊平燮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의 評價와 向後課題	金讚沆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金昌男 · 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高在模 · 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 · 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李忠烈
01-04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鄭基虎 · 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沈義燮 · 李光勛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澤東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李忠彦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程勳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金鍊鐵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gional Development	Chang Woon Nam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吳明錫
03-02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검론: 대만경제에 대한 영향	趙顯堉 外
04-01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金恩慶 · 金興鍾
04-02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의 효율성 분석	朱尙榮 · 金興鍾

■ 지역연구

- 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金興鍾·金良姬·朴英鎬
-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金興鍾·李哲元·朴映坤·朴慶錫
- 03-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李章揆·趙顯竣·吳東胤
- 03-04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鄭在完·權耿德
- 04-01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朴馥永

■ 정책연구

-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蔡旭·金準東·宋有哲·尹美京·徐暢培
 -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金準東·姜仁洙
 -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鄭余泉
 -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的 시나리오별 實證分析和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李明憲·朱文培
 -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琮·李漳源
 -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鄭仁教·李景姬
 -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蔡旭·金準東·梁俊哲
 -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趙明哲·權栗·李哲元·金恩志
 -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主要 쟁점연구 金世植·楊斗鋪·王允鍾·黃祥仁
 - 00-11 WTO 新通商議題 影響분석과 대응 尹昌仁 外
 -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和 北韓의 改革方向 趙明哲·洪翼杓
 - 00-13 WTO 뉴라운드協商的 前景과 韓國의 協商力 提高방안 蔡旭·崔洛均
 -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換·庾相喜
 -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李鍾華
 -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宋有哲·朴芝賢
 -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南相烈
 -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

		黃祥仁 · 金寅培 · 辛仁錫
01-04	韓 · 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金尙謙 · 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曹琮和 · 金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哲 · 金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 · 朴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 · 朴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서의 시사점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 · 환경 · 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서의 시사점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서의 시사점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 旭 · 徐暢培
02-01	DDA 총점검-2002	崔洛均 外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林頌洙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 · 시청각 ·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 高俊誠 · 具文謨 · 朴淳讚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崔洛均 · 鄭在皓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姜文盛 · 魯在峯 · 李鍾華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尹美京 · 崔允僖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南相烈 · 權栗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崔洛均 · 朴淳讚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姜三模 · 王允鍾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姜文盛 · 羅秀燁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尹德龍 · 鄭在植 · 曹琮和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李彰洙
02-13	한 · 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金良姬 · 趙炳澤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池晚洙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 · 교역구조 분석	權栗 · 金玠慶
02-16	중국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趙顯竣
02-17	1990년대 이후 한 · 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梁俊哲 · 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尹德龍 · 鄭衡坤 · 南英淑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李昌在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洪裕洙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金鴻律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朴大權·楊斗鏞·吳奎澤·金恩京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李鴻培·岡本 信廣
02-26	북한경제 백서	趙明哲 외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申寬浩·王允鍾·李鍾和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姜三模·朱尙榮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洪裕洙·李彰洙·姜丁實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安炯徒 外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地晚洙·李 榮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洪裕洙·池晚洙·韓正和
03-07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과급영향	鄭仁敎·吳東胤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權 栗·鄭仁敎·朴仁元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李鴻培·金良姬·金恩志·程 勳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曹琮和·李炯根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姜文盛·金元鎬·朴淳讚·全鍾奎·權奇洙·金眞梧·羅秀燁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安炯徒·尹德龍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趙明哲 外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趙明哲 外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趙明哲
03-16	DDA 중간점검 - 2003	崔洛均 外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宋有哲 外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金準東·鄭永虎·崔秉浩·安德宣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崔洛均·鄭在皓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姜文盛·朴淳讚·李彰洙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尹美京

-
-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金準東 · 金鍾一 · 姜俊求
-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鄭仁教 外
-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姜文盛 · 朴淳讚 · 宋有哲 · 尹美京 · 李 根
-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楊斗鏞 外
-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申寬浩 · 楊斗鏞 · 王允鍾 · 李鍾和
- 03-27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鄭仁教 外
-

權耿德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現, E-mail: kdkwon@kiep.go.kr)

著書 및 論文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2002)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2003) 외

金恩志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졸업

한양대학교 지역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現, E-mail: eunji@kiep.go.kr)

著書 및 論文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2002)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FTA정책을 중심으로』 (공저, 2003) 외

지역리포트 04-06

일본-ASEAN FTA 추진 현황과 전망

2004년 12월 25일 인쇄

200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 94320

정가 5,000원

89-322-6017-6 (세트)

Current Status of promoting Japan-ASEAN FTA and Prospects

Kyoung-Doug Kwon · Eun-Ji Kim

일본은 ASEAN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ASEAN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최근 ASEAN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간 FTA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은 2001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일본은 ASEAN 3개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중 필리핀과는 체결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ASEAN과의 FTA 추진에 있어 무역자유화외에 인력개발, 중소기업협력 및 교육 등 기타 이슈를 포함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다. 2005년 일본은 태국,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이 예상되고 ASEAN 전체와의 FTA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일본-ASEAN 관계는 FTA를 통해 더욱 긴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정가 5,000원